

CIS 지역

■ 對러시아 물류현황과 향후 TSR 전망

[대 러시아 화물 운송방법]

□ TSR을 이용하는 방법

- 진행 상황 : 대개 연해주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순서는 블라디보스톡항이나 보스토치니항까지 해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후 TSR에 올려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됨. 이러한 T/S화물은 각 Port에서 3일 이내 출발시켜야 하며 3일을 초과할 때에는 화물 운송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.

장 점	단 점
- 해상 운송보다 짧은 운송시간 - 저렴한 운송비 - 모스크바에서 통관이 어려울 때에는 연해주 통관 후 내륙화물 운송 가능 - 통관 후 화물을 LCL화 시켜 운송 가능	- 화물의 멸실 및 손상 위험이 -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. - Cargo Tracing이 아직 용이하지 않음. - 각 역의 컨테이너 기지가 아직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화물의 목적지별 교체나 보관 또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.

□ 해상 운송 방법(Deep- Sea를 이용한 방법)

- 진행 상황 : 부산에서 한 달에 한번 움직이고 있으며, 수에즈 운하를 거쳐 함부르크까지 화물 인도 후 함부르크에서 바지선을 타고 헬싱키나 기타 러시아 내륙으로 들어 옴. 현재까지 많은 화물이 이 루트를 통해서 운송되어 왔으나 지난해 이라크전 이후 수에즈 운하를 지날 때 화물 검사가 심해진 이래 화물량이 전보다 줄어든 상태임

장 점	단 점
- 안전한 운송(TSR보다 멸실 및 손실 위험이 적음) - Cargo Tracing이 가능함.	- 운송기간이 김. - 운송비가 TSR보다 높음. - 월 1회 운송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한계가 있음.

□ 항공 운송 방법

- 많은 샘플화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밖에 소량 화물이나 이삿짐 혹은 소포 운송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.

□ 러시아 통관 방법

- 현재 러시아로 들어오는 화물은 대부분 각 도착지에서 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크게 보아서 모스크바 통관과 연해주 통관으로 나눌 수 있음.

- 그러나 모스크바 통관은 여전히 어려워 현재는 핀란드에서 통관하여 헬싱키에서 Trucking하여 모스크바로 운송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. 또한 연해주에서 정식 통관 후 내륙 화물화 시켜 운송하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. 장기적으로 볼 때 대 러시아 화물 운송은 이 방법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.

□ 결 론

- 대 러시아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러시아 물류체계에 대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향후 이 면에서 우리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. 그러나 현재 대 러시아 수출 물량의 많은 부분이 종전과 같이 핀란드를 경유한 러시아로의 진입 방법을 택하고 있어 TSR보다 긴 운송기간의 소요와 비싼 운송비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면이 많이 있음.
- 그러나 현재 TSR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,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항이나 보스토치니항의 노후화된 시설, Cargo Tracing에 대한 문제, 완벽하지 못한 전산화 실태 및 연해주 세관에 대한 모스크바 중앙세관 당국의 엄격한 통제 등이 TSR에 대한 획기적인 이용확대를 막고 있는 요인임.
- 위와 같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스크바 당국이 기존의 방법(핀란드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방법)을 고수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TSR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대 러시아 물류체계는 연해주 통관을 전제로 한 TSR 화물 운송방법으로 보다 많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
(문의처 :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고지찬 jichanko@hotmail.com)